

보도 일시	2022. 8. 23.(화) 09:00	배포 일시	2022. 8. 23.(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이안진 (044-203-2522)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하는 실행방안 논의

- 8. 23. 사회적 관계 촉진 토론회 개최, 심리학계·문화예술계 전문가 참여 -

심리학계와 문화예술계 현장 전문가들이 코로나19로 증가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차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 촉진을 위한 포럼’은 한국심리학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서적 취약성이 증가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4월부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사례관리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토대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 체육, 인문 프로그램 등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 총신대학교 조현섭 교수는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사업’을 주제로 서울 동작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2년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관리 시범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 서울시립대학교 신인철 교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대응 정책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이후 경기대 이수정 교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의욱 센터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 본부장, 중앙대학교 백남영 교수 등이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지역 거점 지정, '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사점과 실행방안을 검토해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거점을 지정하고 이를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인문 상담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국정과제로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사회적 관계 촉진 포럼 운영계획(안)
- 2. 사회적 관계 촉진 포럼 포스터



붙임 1 외로움·사회적 고립 해소 및 사회적 관계 촉진 포럼 운영계획(안)

□ 포럼 취지 및 목적: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정책의 필요성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알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심리, 문화, 체육, 예술계 등)의 의견 수렴

1. 명칭: 제1차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 촉진을 위한 포럼

2. 일시: 2022. 8. 23.(화). 14:00~16:30

3.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4. 주제: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의 해결방안

5. 주최/주관/후원: 주최-김기현 의원실 • 노웅래 의원실

주관-한국심리학회/ 후원-문화체육관광부

6. 식순(안)

식순	시간	주요내용	발표자
등록	13:30~14:00	등록 및 안내	
개회식	14:00~14:05	· 개회 ·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사회 정태연 교수(중앙대 심리학과)
인사말 /축사	14:05~14:25	· 국회 · 한국심리학회 · 문체부	김기현 의원/노웅래 의원 권성동 의원/김윤덕 의원 장은진 교수(제50대 한국심리학회 회장) 전병극 제1차관
사진 촬영	14:25~14:30	내외 귀빈, 포럼 참석자 및 관계자	
주제 발표	14:30~15:00	· 발제1) 사회적 관계회복을 위한 사업(동작구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조현섭 교수(충신대, 제49대 한국심리학회 회장)
	15:00~15:20	· 발제2) 외로움 및 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신인철 교수(시립대)
휴식	15:20~15:30	휴식 및 장내 정리	
지정 토론	15:30~16:20	· 좌 장 : 최진영 교수(서울대, 제51대 한국심리학회 회장) · 토론자 : 발제자 2인 1)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 2) 김의욱 센터장(서울시 자원봉사센터) 3) 노준석 본부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백남영 교수(중앙대 연극학과) 5) 이준호 과장(문체부 문화정책과)	
	16:20~16:30	· 플로어 질의응답	
폐회	16:30	· 정리 및 폐회선언	

제1차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촉진을 위한 포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감의 해결방안



2022년 8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좌장
정태연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최진영 교수(서울대학교, 제51대 한국심리학회 회장)

발제
사회적 관계회복을 위한 사업(동작구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조현섭 교수(충신대학교, 제49대 한국심리학회 회장)
외로움 및 사회적고립감 대응 정책의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신인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토론
이수정 교수(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김의욱 센터장(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노준석 본부장(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백남영 교수(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이준호 과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주최
 국회의원 김기현·노응래

주관
 (사)한국심리학회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후원
 문화체육관광부